

#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 인문계열

## 출제의도 및 제시문 분석

=====

【문제 1】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가)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저 왕궁(王宮) 대신에 왕궁(王宮)의 음탕(淫蕩) 대신에/오십 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 번 정정당당하게/불잡혀간 소설가를 위하여/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越南) 파병(派兵)에 반대하는/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이십 원을 받으려 세 번씩 네 번씩/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悠久)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情緒)로 가로놓여 있다

... <종락> ...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絶頂) 위에는 서 있지/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이발쟁이에게/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회(洞會) 직원에게도 못하고/야경꾼에게 이십 원 때문에 십 원 때문에 일 원 때문에 /우습지 않으나 일 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마큼 작으냐/바람아 먼지야 풀아 난 얼마큼 작으냐/정말 얼마큼 작으냐……

(나) 재일조선인 여학생(H라고 해 두자)이 침울한 표정으로 연구실을 찾아왔다. 그녀는 모국립대학에 다니고 있다. 이른바 성적 우수한 학생들이 다니는 유명대학이다. 어떤 일인지 묻자 H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며칠 전 리버럴한 교풍으로 알려진 사립고교 교사한테서 교육현장 지도방법을 배우는 수업을 받았다고 한다. 해당 과목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은 교사 지망자들이다. 그 수업에서 강사(즉 현역 고교 교사)는 먼저 홀로코스트에 이르는 역사를 간략하게 강의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혼란 중에 나치스의 반유대주의 선전이 서서히 고조되고, 마침내 나치스당이 정권을 탈취한 뒤 일거에 반대세력을 탄압하면서 뉘른베르크법 등 반유대주의 입법을 강행한다. 그 법에 따르면 유대인과 교우관계를 지닌 ‘독일인’(정확하게 말하면 나치스가 ‘아리아 인종’이라 규정한 독일인)도 현저한 불이익을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됐다는 사실 등을 강사는 설명했다. 그러고 나서 강사는 학생들에게 물었다고 한다.

“자, 여러분이 그 시대의 독일인이었고 유대인을 벗으로 사귀고 있었다면 그 벗과의 관계를 유지하겠습니까, 아니면 관계를 끊겠습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H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약간 당혹스러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적 우수한 학생들 다수는 물론 유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대답을 할 것이다. 그것이 그들이 학교교육에서 배워 온 ‘교과서적인 정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그런 선의의 실천이 실제로는 얼마나 험난한 일인지 얘기해줘야 한다. 인간이란 존재의 허약성과 어리석음 앞에서 ‘교과서적인 선의’ 따위가 얼마나 무력한 것인가를.

하지만 동시에 내가 하는 얘기가 학생들에게 ‘선의에 대한 냉소’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엄청난 희생을 무릅쓰고 인종, 민족, 계급, 성 차별의 벽을 넘어 피억압자와의 연대를 실천한 사람들은 존재한다. 예컨대 소설가 카프카의 연인이었던 밀레나는 유대인이 아니라 체코인이었으나 체코를 점령한 나치스가 유대인 탄압을 시작했을 때 그에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려고 유대인에게 강제된 ‘유대인의 별’을 자신의 옷에 꿰매 다녔다. 그녀는 수용소에서 죽었는데, 그 인생이 무의미했는지 불행했는지 함부로 말할 수는 없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저히 미치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그런 행위를 실천할 수 있는 인간 존재에게 외경의 마음을 품고 거기에 한 발자국이라도 다가가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 아마 나라면 그런 식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H가 얘기해준 학생들의 반응은 뜻밖이었다. 그 수업 이수 학생 31명 가운데 19명이 “내가 당시 독일인이었다면 유대인과의 교우관계를 끊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 <중략> ... 그뿐만이 아니다. ‘교우관계를 끊겠다’고 대답한 학생들 중 5명이 차례로 일어나서 당당하게 그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 부끄럽지만 자신은 저항할 용기가 없어 그러겠노라는 얘기가 아니다. 교우관계를 끊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 ‘이론’이란 “그런 상황에서 굳이 교우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자신과 유대인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면 그때 교우관계를 다시 맺으면 된다”는 것이었다. ... <중략> ...

H의 얘기를 듣고 나는 내 생각이 짧았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교과서적인 정의’가 얼마나 천박한 것인지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했으나 실은 그 ‘교과서적인 정의’조차 이미 이 사회에서는 씨가 마른 모양이다. ‘메리트’(유리한 점, 실적, 능력)를 최고의 가치기준으로 삼아 행동할 것, 자기 보신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살아갈 것,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옳은 일’이 된 것이다. 게다가 그 학생들은 이제부터 교사가 되려는 자들이다. “평화가 다시 찾아오면 교우관계를 재개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은 자신은 계속 살아남아야 한다는 전제를 한 번도 의심해본 적이 없는 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죽임을 당하는 것은 유대인과 같은 마이너리티(소수자, 약자)일 뿐 자신이 아닌 것이다. 사태가 그러한데 위험을 무릅쓸 ‘메리트’가 어디 있겠는가.... ... <중략> ...

그 다음날 나는 내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져보았으나 역시 “관계를 끊겠다”는 대답이 많았다. 엘리트들과는 다소 다르게,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반응은 “나와 같은 무력한 존재가 권력에 저항해서 정의를 실천한다는 게 가당키나 하나”는 것이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직한 대답이다.

신자유주의적 경쟁원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좌절감과 무력감에 전 그들답다. 그런 일본 젊은이들도 패배자요 약자라며 변호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내가 보기엔 그런 옹호론은 죽임을 당할 마이너리티에겐 아무 구원도 될 수 없다. 자기변명자들 개개인은 작고 약하고 때로는 사랑스런 존재들이지만 집단으로서의 그들은 가공할 냉혹성과 폭력성을 휘두르고 있다.

(문제 1) (가)에서 드러나는 삶의 태도와 지향하는 세계관에 근거해서 (나)에 기술된 두 집단의 반응을 분석하고, 우리 사회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1,000자 내외)

## 1. 출제의도

“신자유주의적 경쟁원리가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매일매일의 삶의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힘겹게 살아간다. 매스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우리 사회의 수많은 사건과 정보들의 홍수 속에서 개인은 대상이나 사태에 대한 제한된 정보를 사회 지배 원리에 따라 피동적으로만 받아들이기 쉽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와 세계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그러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은 매우 중요하다. [문제 1]의 제시문은 현대 사회의 개인들이 지배 원리를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권력 앞에서 무기력해지는 소시민으로 살아가거나, 자기 반성/성찰을 통해 정의를 추구해 가는 세 가지 유형의 삶의 태도와 세계관을 보여준다. 제시문 (가)에서는 자기 성찰의 삶의 태도와 소시민적 삶의 극복을 지향하는 세계관을 볼 수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에 제시된 두 유형의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우리 사회의 문제에서 어떠한 삶의 태도와 가치관이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지를 묻는다. 이를 통해, 제시문에 나타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이해력과 제시문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력, 추상적 명제를 구체적 사태에 적용할 수 있는 비판적, 논리적 사고력, 다양한 사태에 적용할 수 있는 창의력 등을 평가하고자 한다.

## 2. 제시문 분석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와 여러 자습서에 실려 있는 1965년에 발표한 김수영의 시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인데, 소시민적 삶에 대한 자기 반성을 통해 그러한 삶을 극복해야 한다는 세계관을 보여준다. 제시문 (나)는 서경식(한승동 옮김, 한겨레출판, 2012)의 [디아스포라의 눈]에 ‘보통 존재들의 폭력성’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글인데,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신자유주의적 경쟁원리가 지배하는” 현대 사회의 구성원들에게서 쉽게 볼 수 있는, 지배 원리를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종하는 태도와, 사회적 권력 앞에서 개인의 무력함을 이유로 방임하는 삶의 방식을 보여준다. 제시문 (나)에서는 일본 사회의 구성원(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그러한 반응이나 태도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에게서도 마찬가지로 쉽게 찾을 수 있다.

**【문제 2】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가)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주요 국가들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OECD의 조사에 따르면 남성 임금의 평균값과 여성 임금의 평균값을 남성 임금 평균값으로 나눠 비교 측정한 결과 한국은 37.5%를 기록해 OECD 회원국가 중에 가장 높았다. 남성 근로자의 임금이 100일 때 여성 근로자 임금은 그보다 37.5% 낮은 62.5에 그친다는 의미다.

(나) 2005년 1월 당시 하버드 대학교 총장 래리 서머스는 과학과 공학을 전공하고 미국에서 교수로 활동하는 사람 중 여성은 20 %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여 여성이 자연과학 분야에서 정상에 오르기에는 지적으로 불리하게 태어났다는 점을 암시했다. 한 연구에 의하면 IQ가 120 이상이 되는 남성의 수는 여성의 수보다 두 배가 많고 170이상으로 보면 무려 30배가 많다고 한다.

(다) 초등학생을 체육시간에 한 명씩 트랙을 돌게 한 다음 기록을 재고 비슷한 기록을 낸 학생들을 서로 경쟁시켰더니 남학생은 혼자 달릴 때보다 경쟁 상황에서 더욱 힘껏 달렸고 개인별 기록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하지만 여학생은 경쟁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경쟁할 때도 혼자 달릴 때와 비슷한 기록을 냈다.

(라) 미국 위스콘신대 연구진은 남녀간 수학 능력 차이는 性(성)적 불평등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수학 성적이 탁월한 여성이 남성보다 적은 이유는 남녀 평등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연구진은 여학생에게 동일한 격려와 기회를 준다면 남학생만큼 수학을 잘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2006년 10월 ‘사이언스’지에 실린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연구팀의 논문과 궤를 같이한다. 논문에서는 여성의 수학 능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고정관념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여성은 선천적으로 수학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만 들어도 수학 성적이 나빠졌지만, 선천적 차이가 없다고 믿으면 성적이 좋아졌다는 것이다.

(마) 탄자니아의 마사이족은 태어나면서 여성은 남성에게 복종하라고 배운다. 기본적으로 마사이족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이다. 인도의 카시족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모계사회를 구성하여 유산이 어머니를 거쳐 막내딸에게 전해진다. 카시족에게는 어머니의 집이 가족의 중심지이고 외할머니가 가장이다. 카시족 여성은 경제력을 장악하고 남성에게 엄청난 권한을 행사한다.

(문제 2-1) (마)의 각 상황에서 (다)의 결과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예측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문제 2-2) 미국에서는 최근 남녀공학 대신에 여학교를 가는 학생들의 수가 늘고 있다고 한다. 위 글들을 근거로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문제 2-3) (가)의 사실을 (나)와 (다)를 근거로 수용하려는 견해들이 있다. 이러한 견해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평하시오.

## 1. 출제의도

이 문제는 남녀의 성과 차이가 왜 발생하는가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에 대해 학생들이 제시문을 통해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제시문 (가)는 남녀간 임금격차라는 현상, 제시문 (나)와 (다)는 그러한 격차의 원인에 대한 가설, 제시문 (라)는 이에 대한 반론적 성격의 연구결과들, 제시문 (마)는 남녀의 역할과 관련하여 극단적으로 상반되는 두 사회에 대한 소개이다. 이러한 각 제시문 사이의 관계를 통한 추론 능력을 묻는 것이 이 문제의 출제의도이다.

## 2. 제시문 분석

제시문(가)는 최근의 신문 뉴스 (해럴드 경제 2014-11-14)로 한국에서 남녀간 임금 격차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보이고 있다.

제시문(나)는 과거 하버드대학 총장이던 래리 서머스가 발언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결국에는 총장직을 사임하도록 만든 여성의 지적 자질과 관련한 발언과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적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폴 어윈, Independent, 2006-11-30)

제시문(다)는 여성이 높은 임금을 받는 직종이나 직위를 인구비례만큼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제기된 가설, 즉 여성은 선천적으로 경쟁을 싫어한다는 것에 대한 실험경제학적 결과의 한 예를 소개하고 있다. (유니그리지, 존 리스트, 무엇이 행동하게 하는가). 즉 여성이 높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남성과 다른 기질, 즉 경쟁적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제시문(라)는 위의 주장들에 대한 반론적 성격을 가진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고 있다 (매일신문 2009-6-4). 여성의 성과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거나 관습에 의해 학습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제시문(마)는 두 극단적 상황, 즉 강력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와 요즘은 보기 드문 강력한 모계사회의 사례를 들어 제시하고 있다 (유니그리지, 존 리스트, 무엇이 행동하게 하는가)

요약하자면 제시문 (가)는 남녀간 임금격차라는 현상, 제시문 (나)와 (다)는 그러한 격차의 원인에 대한 가설, 제시문 (라)는 이에 대한 반론적 성격의 연구결과들, 제시문 (마)는 남녀의 역할과 관련하여 극단적으로 상반되는 두 사회에 대한 소개이다. 이러한 각 제시문사이의 관계를 통한 추론 능력을 묻는 것이 이 문제의 출제의도이다.